

가뭄에 목타는 전북 ... 내년 농사도 걱정

저수율 30% 이하로 떨어져 ... 도민 절수 운동

도, 51억 들여 간이 양수장·저수지 준설사업

여름 '마른 장마'에 이은 가을 가뭄으로 전북지역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내년 농사에도 타격이 우려될 전망이다. 높은 절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차지단체들은 시민 절수 운동을 담은 홍보 전단 수십만장을 배포하는 등 가뭄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두달 넘게 지속되는 가뭄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과 함께 상수도 누수를 줄이기 등 다양한 절수 시스템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저수지 2248곳(6억8400만t)의 평균 저수율은 29.9%(2억400만t)으로 평년(72.7%)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옥정호, 대야제 등은 10% 안팎의 저수율을 보이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올해 최저 저수율인 25.5%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나마 10월 강수량이 105mm로 평년(50mm)보다 두 배 넘게 더 내리면서 저수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가뭄을 해결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한 해 강수가 집중되는 6~8월 전북 강수량이 318.7

mm에 그치면서 평년(751.9mm)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8월 강수량은 68.2mm로 평년의 23.2% 수준에 그쳤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용수개발사업과 절수 운동을 벌이며 물 부족에 인간 힘을 쓰고 있다. 전북도는 용수개발사업에 대해 국비 38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13억을 더 확보해 간이 양수장과 저수지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과 정읍, 순창, 익산 등 13개 시·군에서는 '시민 절수 운동' 홍보 전단 21만8600여장을 배포하고 101곳에 플래카드를 걸어 더 확보해 간이 양수장과 저수지 준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3개 시·군에 있는 4개 전관관을 통해 '물 부족에 대비합시다'라는 홍보 문구도 내보내고 있다. 김재식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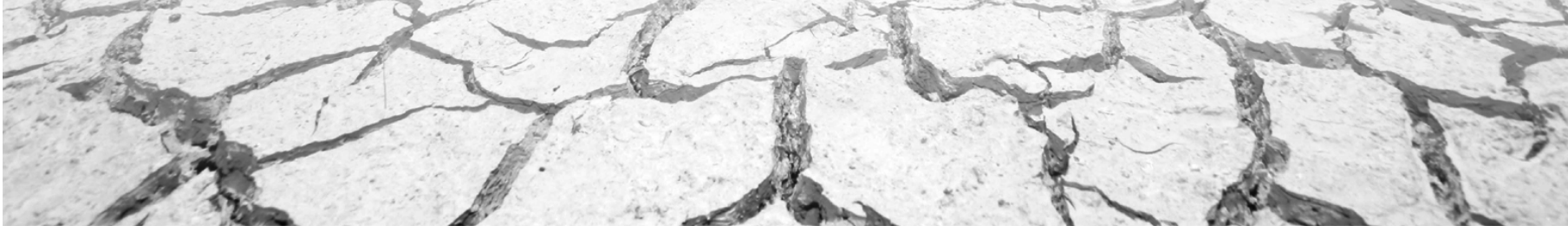
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절수 운동을 시작했다. 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세탁물 모아서 하기, 양변기 물탱크에 벽돌 넣기 등 물 아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버려진 창고나 농장의 불필요한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농사가 마무리되면서 농업용수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가뭄이 계속되면 내년 영농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비가 적게 온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양수장과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백규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순창=이동희기자 dhlee@

GS칼텍스 '장도 개발 사업' 추진

내년 초 착수 할듯

GS칼텍스가 여수시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 공연장 예술마루에 이은 2차 '장도 개발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GS칼텍스재단과 여수시는 4일 예술마루 회의실에서 '장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제2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 용역진은 기존 장도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했던 '가꾸어 가는 예술의 섬'이라는 방향성과 예술마루 설계자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설계 콘셉트인 '친환경과 산책로(Promenade)'라는 개념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여수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었던 장도 개발사업 축소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이번 용역에서는 장도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을 고려해 기존 계획 가운데 상설전시장과 카페를 전시·교육·체험 등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아틀리에에 작가 휴게공간(간이집대·주방·화장실 등)을 추가해 작품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또 예술마루 쪽에서 장도를 연결하는 보행교량은 장도가 가진 섬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석축 교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시와 함께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과 여수시민의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장도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일부 시내·시외버스 노사 협상 타결

'기본급 10% 인상' 합의

결렬된 군산은 파업 돌입

임금 인상 폭을 두고 파업까지 예고하며 팽팽히 맞서던 전북 시내·시외버스 노사가 이틀간 협상 끝에 지난 3일 일부 지역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4일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전북지역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노사가 협상을 벌여 전북지역 시외버스 5개사(호남고속, 대한고속,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와 익산, 정읍, 김제, 고창지역 시내·농어촌버스가 '기본급 10% 인상'에 합의했다. 반면, 부안과 군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8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 군산지역 시내버스 2개사(군산여객, 우석여객) 버스 116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다음날도 8

시간만 근무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일괄 합의가 무산돼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남원, 부안, 무·진·장은 잠정 합의를 보고 추가 협상을 하고 있다. 임실과 순창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파업을 유보한 상태다.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수는 애초 예고한 1천40여대에서 116대로 줄어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합의가 무산된 군산 지역에 전세버스 43개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추가 협상을 벌이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파업이 진행되면 택시부제 해제와 대체 교통수단 등 대비책을 통해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성 한노총 자동차연맹 전북지역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되는 지역은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고 파업은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농업박물관 '남도 생명 쌀' 기획전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 전남쌀 인지도·구매력 높여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최근 쌀 소비 감축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6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쌀 문화관에서 '영혼이 깃든 남도 생명 쌀' 주제 기획전을 개최한다. '영혼이 깃든 남도 생명 쌀' 주제 기획전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고품질 쌀을 전시 홍보해 관람객들에게 전남 쌀의 인지도와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은 남도 생명 쌀의 흔적, 쌀의 상징, 남도 브랜드 쌀, 쌀의 변신 등 4개 주제로 꾸며진다. '남도 생명 쌀의 흔적'에서는 우리나라 쌀의 기원과 남도지역 쌀농사 연원 및 발전사 등에 대해 쌀 관련 유적·유물을 예로 들어 복합 그래픽 패널을 통해 소개하고 '쌀의 상징'은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민속, 종교, 철학, 통과례 등 쌀에 대한 상징성을 담았다. '남도 브랜드 쌀'은 지난 200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2년 연속 전국 최대 선정된 전남 쌀 가운데 지난해 밝힌 5개 브랜드 쌀을 선

보인다. 지역 쌀의 품질 관리와 고급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선정한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과 시군별 대표 브랜드 쌀, 친환경유기농 쌀, 도 지정 유기농 명인 쌀, 기능성 건강미, 유색미 등도 전시한다. '쌀의 변신'에서는 나락, 쌀, 왕겨, 속겨, 찌라기, 현미, 백미 등의 쌀 모양을 전시하고, 쌀이 이전 주식에서 벗어나 화장품을 비롯해 비누, 세제, 아이스크림, 음료, 과자, 쌀 고기 등 다양한 종류로 변신해 이용되고 있음을 각종 쌀 가공 상품을 전시해 보여준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이번 기획전과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쌀 문화관 앞마당에서 '남도생명 쌀 놀이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극단 깃들이 주관하는 부대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마당극 '남도천지밥', '뽕파전', '뽕바꿀바'와 '생명의 쌀곳' 등이 이어지고, '남도 쌀 사랑 길밥', '뽕년대장군·햅쌀여장군', '희망순대'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누출 사고 OCI 군산공장 영업정지

주민 105명 대상 건강 영향 추적 관찰·보상대책 필요

지난 6월 22일 발생한 군산시 OCI공장의 사염화규소(SiCl4) 누출사고 원인은 균열보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주민 105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양오염은 크지 않았지만 인근 농작물에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OCI 군산공장은 즉시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발과 함께 1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가진 'OCI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영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병욱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공장 벨로우스 밸브 보닛의 미세균열 보수작업 중 균열 부위가 커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의 누출량은 108.26kg, 공기 중 반응해 생성된 염화수소는 최대 87.28kg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사고 당시 눈, 발, 상가에 있던 주민에게 급성 노출 증상이 나타났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장기 손상 사례는 관

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단이 건강영향을 신청한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설문조사, 의료기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105명이 ▲관련성 거의 확실 6명 ▲높은 61명 ▲낮은 38명 등으로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됐다. 사고지역과 인근 농경지 354필지(113만 8천여㎡)의 환경, 수질·토양·대기오염은 심각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농경지 8만2천㎡에서 수확량 감소, 잎마름, 갈색 변화 등이 확인됐고 농작물, 유실수, 가로수 등의 피해액은 1억여원으로 산정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조사결과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재조사, 보상책 마련, 환경청 군산출장소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3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OCI 군산 폴리실리콘 2공장에서 염화규소(SiCl4) 62kg가량이 외부로 누출돼 근로자 1명이 다쳤다. /군산=백규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된 전망양호 대3억 8천만원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횡동주택3동 교통편리 대7억원
- 나주시 봉황면 축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입04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매2억4천만원
-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피숍 최적지/구상교대 5억9천

농지 / 입야

-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전1,528㎡ 혁신도시인근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매5억8천만원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매7억6천만원
-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담4,000㎡ 혁신도시인근 매2억원
-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전 갈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3억원
- 나주시 다도면 홍진리 잡종지 8,311㎡ 보건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매7억원
- 나주시 금천면 송촌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원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원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13,530㎡ 면소재지 매2억4천만원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담7,610㎡ 2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1억9천만원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입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직접 매30억원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매4억8천만원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입야1,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원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광산구 지곡동 2529㎡ 공시지가 2억 매도 2억 3천
- 부안군 부안읍 삼암지 968㎡ 공시지가 595천 매도 597천
- 장성읍 리모평리향 무인도 대지 600㎡, 건물 835㎡, 객실 247기 대출3억 계약조건은 조정함 593천
- 시내 호텔 대지 923㎡, 건평 2296㎡, 지하2층 지상2층 객실 45실 등 오양병원 등 적합 46억(원할 24억 매도 45억)
- 광산구 송정동 원목 건물 대지 493㎡, 건평 700㎡, 방 27개 감정 6억이상, 대출 2억2천, 전세 198천 매도 593천
- 충장로5가 대지 126㎡, 건평 419㎡, 공사시공에 매도 295천
- 금남로4가 대로변 대지 317㎡, 건평 1235㎡ 은행 493천 임대 1억에 월60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55천, 투자 가치 좋음
- 무안군 망운면 옥지에서 650m 떨어진 독립식 별장, 전원주택지, 요양시설등 적합, 공시가 295천 감정 593천전 매도 395천

투자 / 매도 / 교환

- 진도군 고군면 산 5101평, 화순 동면 천덕리 대지 97평 5천만원
- 화순 도곡면 월곡리 산 5851㎡, 전원주택, 요양시설 적합 1억천
- 대인시장 입구 대지 394㎡, 건평 1455㎡, 전세2억, 월700전 1595천
- 월산피출소 부근 준주거지 309㎡, 주상복합용를 적합 394천
- 화순군 춘양면 용우리 계획관리지역 65897㎡ 전원주택·요양시설 등 적합 투자성 좋음 698천
- 화순군 동면 신축 별장용주택 대지 706㎡ 주택 200㎡ 은행 195 천 매도·교환가능 2억 8천
- 나주시 남평 도로접 833㎡ 창고·서동적합 195백
- 순창군 북흥면 면사무소 인근 백양사, 내장사, 추월사 모두 10분 거리 전원생활 특색있는 식당·찻집 등 적합 대지 991㎡ 5천9백만원
- 정동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펜션 적합지 2161㎡ 교환가능 393천
- 용봉동 유창이파트 상가 2층 104㎡ 0피트르 개조 8000만원
- 고흥군 북동 대지 82평 건평 147평 원목·투룸 14개, 인접 696천
- 남구 노대동 그린벨트 입과 담 89817㎡ 건축허가면적 1449㎡ 수목원 허가있음 투자에 최적, 교환가능 14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충장로5가 광주은행과 수협 부근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북구 중흥동 대로변접(병원,사옥적합) 상업지역 대지396㎡ 건물1,750㎡ 지하층~지상5층 감정가 13억7천3백 최저가 4억9천2백 접근성, 광고효과★★★★ 감정가의36%

★북구 누문동 수창초등학교인근, 단층 근린시설 대지1009.9㎡ 건물787.2㎡ 뉴스테이개발지역 2천6백세대아파트추진 수익성★★★★ 감정가 11억7천2백 최저가 8억2천 감정가의70%

★북구 각화동 금호타운맞은편 3층상가건물 대지285㎡ 건물871㎡ 접근성,가적★★★★ 건물상태양호, 현기아자동차적영점점중 감정가22억3천5백 최저가5억6천5백 감정가의70%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3층무인텔 대지1522.5㎡ 건물1999.6㎡ 감정가34억5천6백 최저가24억1천9백 감정가의70%

★남구 진월동 진월국제테니스장 맞은편 3층 근린주택, 대지331㎡ 건물526㎡ 왕복4차선도로접, 접근성★★★★ 감정가3억9천8백 최저가2억7천9백 감정가의70%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잔금대출까지 상담가능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개인 병원 부지

- ☑ 상업지역 108평
- ☑ 사통팔달 교통요지
- ☑ 터미널부지 내
- ☑ 인구급증 예상지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법원경매매정정보

부동산재테크 연구소장 이은진 추천물건

전국 무료 사이트

투데이옥션
1899-9071
하프옥션
공정 감정대비 30%~70%